

##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 신국원 (충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언어카데미 소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합니다.



### Q1. **닌 아주 특별해! 우린 어떤 점에서 특별한 걸까요?**

#### 인격적인 존재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더 볼여 대화할 수 있는 “나”로 만드셨지요. 인격의 본질은 자유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요한 칼빈은 인간의 미음에 “종교의 씨앗”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으로 지어졌기에 ‘예쁜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만을 향해 할 일과 해서는 안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순종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런 특권과 책임을 누리지 못했다면 범죄할 수 없었지요. 죄란 세상에 본래적으로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인해 들어온 윤리적인 실패의 비극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인간관과 크게 다릅니다. 첫째, 자율적인 인간관과 다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체질과 성격을 타고나며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둘째, 결정론과도 다릅니다. 마르쿠스가 주장하듯 경제에 의해 결정되거나 프로이트의 말처럼 본능과 점제의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후가 개인의 정체성을 정한다고 주장하는 구성주의와도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이 전적으로 자율적이지 않지만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동적인 존재만도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을 맺는 종교적 존재입니다.

### Q2. **아이들에게는 ‘다스린다’는 말이 ‘내 뜻대로 하다’의 의미로 이해되나 봅니다. ‘말긴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 선악과를 두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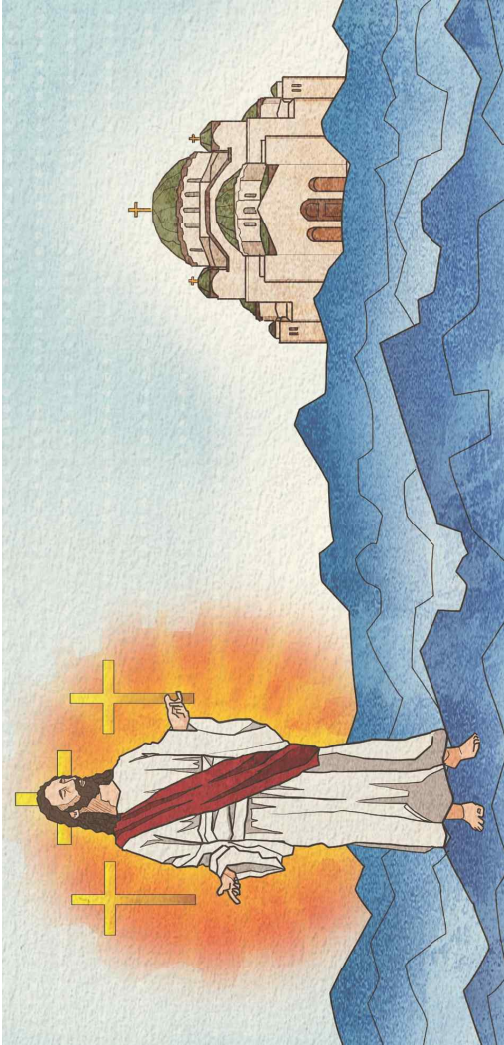
선악과는 무감독 시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감독을 않는 것은 건담의 유혹에 빠트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보든지 않든지 정직한 자세를 갖는 성숙함을 배울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에게 볼을 가까이 못하게 하지만 볼을 영원히 멀리 할 수는 없지요. 또 고의로 데게 하여 그 위험성을 가르칠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기에게도 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애쓰지요.

선악과를 성본능과 비교해 봅시다. 성적 충동은 선한 것이지만 때때로 괴로운 유혹의 빌미가 됩니다. 오늘 날처럼 성적 자극이 가득한 문화 속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가르치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순결은 바른 인격 성정이나 건전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유혹에서 차단된 진공 속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온전한 자유를 행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단이었습니다. 선악과는 결코 인간을 시험하는 유혹이나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주의 말씀에 가까이 순종하는기를 보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나? 라던가 그것을 먹을 때 왜 막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선악과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시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 Q3. 인격적인 순종?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시는 배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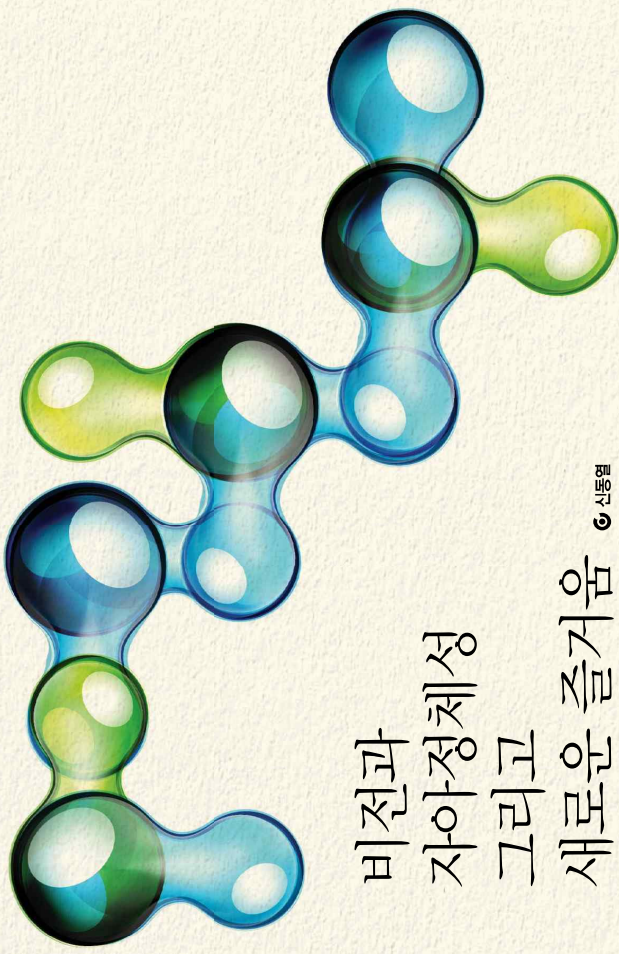
#### 선악과와 울분

선악과는 울분과 비슷합니다. 울분을 주신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의의 악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울분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줍니다. 마치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따라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운전자는 알코올측정기에 대고 마음껏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겨야 할 것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미혹된 마음에는 선악과가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이 담긴 악수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음직도 하고 보양제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라." 이처럼 타락은 인간의 감각과 이성 그리고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계 총장위원이자 세계한국어학자 협회 회장이다. 저서로는 '번역과 생명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인생', '이성 MP' 등이 있다.



## 비전과 자아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

신동열

#### 비전교육과 진로교육의 차이

비전이라는 주제는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크리스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청년들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한 소망과 계획을 품는 것은 기독교교육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크리스천에게 진정한 비전이란, 이 땅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들을 향한 기독교교육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접근으로 어떤 직업, 일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비전을 너무 직업으로만 접근하면 분명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교육이란 점진적인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기독교 세계관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 만이라도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기독교교육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진다. 어느 교단의 청소년 공과 집필에 참여한 경험상 청소년들은 매 학년 매 학기마다 비전이라는 주제를 접하게 된다. 교회의 수련회 등에서도 비전은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이다. 기독교교육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비전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비전을 고민하게 한다. 이처럼 비전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비전교육을 진행하는 사역자나 교사들 중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일단 청소년들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교육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 이후에도 그들의 비전과 꿈이 잘 형성되지 않으며 형성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먼 것들을 비전